

조지 페이튼 박사, 성경 번역, 세션 22, 동사적 아이디어와 소유격 구문

© 2025 George Payt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번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조지 패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동사적 아이디어와 생성적 구문입니다.

우리는 동사적 아이디어의 번역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소유격 구문을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언어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소유격 구문을 번역하는 방법, 그것을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적 아이디어 자체는 이러한 구성의 특성 때문에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난해합니다. 모든 정보를 말하지 않고, 또한 기술적으로 동사가 아닌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명사나 형용사와 같이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소유격 구문을 가지고 있고, 소유격 구문에 동사 명사나 동사적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떤 식으로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릴 것입니다 .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소유격 구문이고, 선지자는 사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할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에베소서 1:1,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들은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음,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독자가 알아내려고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쉽거나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걸림돌이나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문구에 관용어나 다른 비유적 표현이 있을 때 해석의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반드시 관용어는 아니지만 관용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식을 주나요? 지식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구체적인 것을 줍니다. 저는 테드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가르치는 것인가요? 정보를 주거나 말하는 것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좋아요, NLT가 그것을 표현하고, 이것이 NLT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의 백성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동사를 선택했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동사 찾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는 여전히 구원과 용서가 있고,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분해해야 하는 전체 문제입니다. 좋아요, 이런 도전은 신약 전체에 걸쳐 공통적입니다. 특히 서신에서 그렇지만 서신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다시 그는 우리를 입양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저는 입양에 밑줄을 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들로서, 그 자신에게, 그의 뜻의 친절한 의도에 따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이요, 추상 명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얻었으니, 명사, 그의 피를 통하여, 곧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심이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것이요, 추상 명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는데, 추상 명사, 다시 말해서, 그의 친절한 의도에 따라, 그는 그에게서 경륜을 목적으로 계획하셨고, 또 다른 명사, 시대의 총만에 적합한, 추상 명사, 총만함을 가진 소유격 구.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네 구절에 걸쳐, 우리는 방금 몇 개의 번역 과제를 발견했습니까? 열다섯 개? 스무 개? 그런 식입니다. 정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의 뜻의 의도를 말할 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도는 하나이고, 의지도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게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 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추상 명사가 있는 소유격 구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복합 번역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바울의 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네, 매우 뻑뻑합니다. 매우 간결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제 목표는 먼저 이런 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 사용 방식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박사 학위를 쓰고, 똑똑해 보이려고 추상 명사나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어처럼 들리죠 . 그래서 외국어처럼 들리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는 어떨까요? 복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적인 것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전에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그 언어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치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경은 낯선 것입니다.

추상 명사를 번역하고 분해하는 전체 과정은 이러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구절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사도행전 13:12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었고, 거기에 총독이 있었고, 바울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결국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 총독은 놀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주님의 가르침, 가르치다라는 동사,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 주님에 대한 말씀 또는 성경,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총독에게 가르쳤습니다.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거기의 초점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몰랐던 신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함과 겸손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했나요?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 교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오르마에서 일할 때, 저는 실제로 신자가 아닌 오르마 남자 두세 명과 함께 일했고, 우리 집 근처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과 저녁, 아침 식사를 위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제 10살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걸 번역하는 건 당신 혼자예요. 그리고 당신이 번역하는 이 성경은 오랫동안 쓰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번역하면, 오랫동안 쓰일 거예요.

잘못하면 오랫동안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는 제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는 매일 매 순간 그것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와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같은 구절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5에서, 그래서 당신도, 실례합니다, 당신도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같은 방식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니콜라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사를 분해해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 입니다 . 니콜라당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고, 어쨌든 조금 이상한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침을 붙잡습니까? 약간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또한 니콜라당이 가르치거나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치는 것들을 믿거나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같은 원리를 다시 사용하여 그것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 이것은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걱정, 재물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들어와 말씀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 그의 제자들은, 미안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글쎄요, 탄자니아에서 일할 때, 우리는 사무실에 있었고, 10개의 다른 언어가 있었습니다. 10개의 다른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작업한 첫 번째 책 중 하나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 도달했고,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 구절 중 하나는 세상의 걱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세상이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걱정,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럼 동사는 뭐야? 동사는 걱정하는 거야.

누가 걱정하는가? 세상은 걱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유에서 우리가 물러나서, 좋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가? 그들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할 것이다.

좋아요, 세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관용어나 비유적 표현, 아마도 환유일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보이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 바로 앞에 나오고, 부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들이 약간 동의어이거나 적어도 같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게 세상적인 것들이죠? 부라는 단어를 보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걱정과 세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인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소유물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시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걱정할 때는 쉼표,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의 기만이고, 이것은 탄자니아 번역가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의사소통 언어로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각 팀은 그것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부의 기만성. 동사, 속이다. 부와 사람들.

누가 속이는 걸까요? 우리는 참여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를 속이고 있을까요? 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탄자니아 번역가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은 이거고, 이건 스와힐리어로 된 기만적인 부의 문자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우단가니푸 와말리 . 부의 속임수.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글썄요, 누군가의 부를 속이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udanganifu 또는 danganya 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것은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냐는 진실에 대해 그들을 속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인의 사고방식에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무언가를 속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그래서 , 만약 우리가 모든 참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어떤 소유물에서 사람을 danganya합니다 .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사기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1번, 이것은 의인화이고, 돈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네, 부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는 실제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이고, 실례합니다, 주관적입니다.

주어진 riches는 속이는 일을 하고 있으며, 속는 사람들은 이 동사의 다른 참여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싶다면, they are deceived by riche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좋아요. 세상의 걱정, 우리는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부의 속임수, 우리는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욕망은 소유격 구문이 아니지만 욕망은 동사 명사입니다.

그리고 choke는 동사입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물들이 세상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그리고 언급된 구절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은 모두 같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질식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질식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고, 약간 다르지만, 비유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단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열매 맺음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 맺지 못함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사람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의인화입니다. 그 단어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움직이는 사물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일도 비유적입니다. 무엇에 비유적일까요? 선행, 순종, 믿음,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다 그 단어 fruit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개의 절로 이루어진 매우 많은 내용이 담긴 한 문장이고, 그 안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각각 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걱정,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한 지점입니다.

다음은 가능한 번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부를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함으로써 속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질식시키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은 `quote- unquote`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가까운가요? 가깝습니다. 더 나은가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영어로 제작된 이 번역을 가져와서 토론의 요점으로 삼고, 숙고한 다음, 그 특정 구문을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할 때, 꼭 주석, 다른 성경 버전,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허용 범위에 있는 해석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세요. 완벽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고,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바라건대,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에 대해 비슷한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료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일은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이 모든 다른 부분을 분석하고, 이 다른 번역 전략, 이 다른 번역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고 2,000년 이상 이 모든 것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아요, 로마서 1장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간다에서 번역 워크숍을 했을 때 제 작업의 일부였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 느니라. 바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의 서두입니다. 와우.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마-사실, 잠깐 이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이걸 처리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제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들은 내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읽으셨어요? 뭐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로마서 1 장 부터 7장까지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글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글썄요,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는 각 절을 살펴보고, 다른 절과 관련하여 어느 절이 주요 절이고 어느 절이 다른 것을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함께 흐르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종속시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그 아래에, 성경에 있는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약속은 선지자들로부터 왔고, 선지자들은 경전에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절들 사이의 모든 상호 관계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절과 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절은 동사를 포함하는 구입니다.

거기에 동사가 없다면 그것은 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스와힐리어 및 기타 언어에서 동사가 없는 절에 be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스와힐리어로 그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to be를 제외하고, 절은 동사가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 관계를 살펴보고 무엇이 두드러지고 무엇이 종속적인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확립하면, 우리는 참여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사 자체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한정 동사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리고 서로 연결될까요? 정말,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약성서의 7,800개 구절 중 7개 구절입니다.

좋아요, 이제 7,793으로 줄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내고 번역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번역의 작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 명사와 분사를 식별하고, 참여자를 식별합니다. 참여자가 살아 있는 존재이든 살아 있지 않은 존재이든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비유적 표현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때로는 한 구절에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의인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 절 사이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순종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하고 믿습니다. 순종을 동사로 분해하려면 순종이 되고, 믿음을 동사로 분해하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함께 맞추까요? 그것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낳을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거나, 믿고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이방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은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문장에 넣어보세요. 긴 일곱 구절인데, 다 맞춰보려고 노력하죠. 네,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구절을 다시 써서 첫 번째 초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구절을 번역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거친 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수동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조지 패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동사적 아이디어와 생성적 구문입니다.